

# 오푸스데이 단장 몬시 놀의 2020년 1월 5일 메시지

새해를 시작하며 오푸스데이  
성직자치단장 페르난도 오카  
리스 몬시놀은 우리들에게 우  
리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 안에  
서 우리들의 신앙을 새롭게 다  
시 한 번 다잡기를 요청하엿습  
니다.

2020-1-8

사랑하는 여러분, 예수님께서 저의  
영적자녀들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!

새해를 시작하는 이 때에, 여러분은  
분명히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호세마  
리아 성인의 “새로운 해, 새로운 투  
쟁!” 이라는 말씀을 회상할 것 입니  
다.

맞습니다. 새로운 해를 위한 이 투쟁  
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요구합니  
다. 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성한 은총  
이 우선시 됩니다.

우리 함께 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의  
선물을 받기 위해서, “좋은 땅”이 되  
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씨 뿌리는 사  
람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. (마태  
13:8) 그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었  
습니다

예수님께서서는 이 선물을 매일 우리에  
게 성체성사 안에서 주십니다.

카파르나움의 회당에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

“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,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.” (요한 6:53)

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더 깊고 감사함으로써 (요한1서 4:16 참조) 새로이 하기 위해 좋은 방법은 성체성사 안에서 성사적으로 보여지도록 만들어집니다.

그러므로 “좋은 땅”이 되려는 우리의 투쟁은 씨앗을 효력있게 만들게 할 것 입니다.

보잘 것 없는 우리이지만, 우리 함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돌립시다. 그분께서는 우리가 새롭게된 효력과 기쁨으로 채워지길 원하십니다.

애정이 가득한 축복을 보내드립니다.

여러분들의 아버지,

로마, 2020년 1월 5일

.....

pdf | document generated automatically  
from [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  
opuseudei-danjang-  
monsinyolyi-2020nyeon-1weol-5il/](https://opusdei.org/ko-kr/article/opuseudei-danjang-monsinyolyi-2020nyeon-1weol-5il/)  
(2026-2-21)